

사

시로 사랑하여라

해외선교후원회 소식지

2019.03 spring

제206호

사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 발행인 염수정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별관 525호 해외선교봉사국
전화 02)727-2407, 2409 | 이메일 mission@seoul.catholic.kr | 팩스 02)727-2411 | 홈페이지 http://mission.catholic.or.kr





*

주님께서 사제성소를 풍부하게 내려주신 지역교회가

*

사도적 열정을 갖춘 선교사제들을 나누는 일은

복음화가 필요한 다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육성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

*

*

“ 세계 교회와 나누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임을 ”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 해외선교봉사국장

지난겨울의 추위가 지나가고 만물이 새로운 희망으로 꿈틀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후원 회원님들 마음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열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도 주님의 숨결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올해도 성실히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겨울 동안 세계 여러 지역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기니, 스페인, 일본, 과테말라, 파나마, 콜롬비아 등지에서 사제 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2일에 명동대성당에서 다섯 분의 교구사제들을 스페인, 멕시코, 미국, 일본 등으로 파견하는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교구장님께서서는 미사 강론 중에 선교지로 파견되는 사제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며, 우리 사제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잘 열매 맺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서울대교구의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신앙의 풍요로움을 나누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구사제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기를 호소하였고, 해외선교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어 우리 교구에 풍요로운 열매를 나누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제성소를 풍부하게 내려주신 지역 교회가 사도적 열정을 갖춘 선교사제들을 나누는 일은 복음화가 필요한 다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육성되고 촉진되어야 한다.”(Redemptoris Missio n.7 참조) 이처럼 서울교구 사제단이 선교를 통해 세계 교회와 나누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소명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체험하는 이 사순시기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서울대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에게 주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지 이야기



과테말라

산티아고 대교구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어느덧 과테말라에서 새해를 맞이한 지 5번째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히 '사제'입니다. 사제의 부족으로 성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긴 시간 동안 사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개별 신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사보다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성인의 성상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가끔 개별적으로 미사가 필요할 때면, 알아서 개인적으로 본인의 미사를 집전해줄 사제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신자들이 미사의 중요성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개별 미사를 신청하기보다는, 본당 미사에 지향을 넣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의 필요성은 너무나도 절실히 느낍니다. 가끔은 몸이 두 개 아니 세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미 새를 기다리는 아기 새처럼, 본당 신부님이 자기 단체 또는 지역을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는 모습, 행사나 회합 때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에서 더더욱 그러한 마음을 느낍니다.



2019년을 시작하며 이제는 신자들의 교리교육에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사제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지속적인 교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자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첫 영성체 교리, 견진 성사 교리, 혼배 성사 교리 그리고 본인의 아기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 받는 부모 교리가 일생에 받을 수 있는 교리의 전부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성체 분배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일생에 4번 정도가 전부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과테말라 대교구 차원에서 본당에서의 체계적인 교리교육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당에서 교리교육자들을 양성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을 가졌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전 신자를 대상으

로 하는 첫 교리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자들과 함께 준비하며 다시 한 번 느끼는 점은, '일꾼' 즉 사제의 부족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루카 10,2)라는 말씀처럼 더 많은 신부들이 신자들 곁에 있다면, 이러한 교육이 조금 더 잘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2019년을 시작하며, 과테말라 교회 공동체가 성사 생활과 교리교육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청하여라.(루카 10,2)라는 말씀처럼, 많은 선교 사제들이 주님의 밭에 파견될 수 있기를 청해봅니다. 🙏

산티아고 대교구

얼마 전 우리 마을 San Lorenzo el Cubo 안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본당 주보성인 축제나 가족의 생일과 같은 기쁜 일이 있을 때면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폭죽을 만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한 사람의 실수로 화약에 작은 불뚱이 튀어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 집과 그 주위 총 11채의 집들이, 벽돌로 쌓아 놓은 벽 일부분만 빼고 썩~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잃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성체 분배자들과 그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그 집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이것 봐요. 이 폭발로 열린 집이 무너졌고, 대부분이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이 성서 한 권만 전혀 그을리지도 않고 무사했어요. 이거 기적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 기적 같다. 그리고 이 큰 폭발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은 것 또한 하느님의 기적이야." 그리고 성체 분배자들과 함께 기도와 강복을 해주고 성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성체 분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갑자기 닥쳐온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을 거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 안에서 하느님의 기적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였기에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동철 리노 신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 오히려 하느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작은 손길과 섭리를 찾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 안에서, 눈으로 명확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의 섭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한 걸음 이들과 함께 그분께로 나아가 봅니다. 🙏



콜롬비아

보고타 대교구

양호 바오로 신부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 나가길 희망해 봅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파나마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과 정순택 베드로 주교님께서 한국 주교단을 대표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 순례단은 글라렛 수도회 신부님들이 사목하고 계시는 “Parroquia Santuario Nacional del Corazón de María”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380여 명의 한국 청년들을 가정에 초대해 주신 모든 본당의 교우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파나마 시티 교구장님 주례의 개막미사로 시작된 본 대회는, 교황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성체강복과 묵주기도, 그리고 폐막미사로 끝이 났습니다. 대회기간 내내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청년들의 환한 웃음과 열린 마음자세였습니다. 언어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하나의 신앙이 주는 기쁨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웃음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폐막미사에서 교황님의 강론 중 “청년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가 아닌 현재”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각자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나 자신에게는 무관심해지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의 나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현재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하며 존중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현재이며, 하느님의 현재입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땡땡!

사목센터를 마련한 후 자주 듣게 되는 초인종 소리입니다. 주로 미사시간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가끔은 자신이 사는 주변에 경당이 생겨서 기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한 자매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 모임 [CER(Comunidad Eclesiástica del Reino de Dios, 하느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해 줄 수 있는지 요청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미사에 초대를 했고, 미사 후 경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8월에 한 번씩 갖는 모임에서는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교황님 회칙을 강독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모임은 영적으로 동반해주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회칙에 있어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기도모임에 함께하는 교우 분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영육 간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한국을 떠나 선교사로 살고 있는 서울대교구의 모든 선교 사제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 선교사들에게 큰 선물인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은총의 사순시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마태 5:12)



페루

리마 대교구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

+ 찬미예수님

페루에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협력사제로 선교하고 있는 양용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저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언어를 끝마치고 올해 1월부터 리마, 완도이(Huandoy)라는 곳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본당을 중심으로 18개의 공소가 있습니다. 5명의 신부가 각 공소를 맡아서 사목을 하고 있고, 주일이 되면 자기가 맡은 공소뿐만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른 공소에서 미사를 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적응이 필요하고 또한 언어 역시 더 배워야 하지만 그동안 신자들에게 더 없는 환대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성탄 미사를 집전할 때, 처음 본 외국인 신부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미사를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그런 것보다 자신들의 공소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을 환영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의 본당에 그리고 공소에 와



서 처음 미사를 집전하는 한국인 신부를 반가운 인사로 환영 해주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환대는 정말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이곳 신자들과 지내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회의 때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와 녹음된 내용을 다시금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고해성사 때에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금 되묻는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에게로부터 그리고 이곳의 신자들로부터 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신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한국을 떠나 이 낯선 곳에서 받은 사랑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 있지만 처음 제가 느끼고 그리고 받은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3월 6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시기로 접어들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처음 접하는 사순시기일 것입니다. 사순시기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래서 나는 참으로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것에 대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전하는 선교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스페인

쿠엔카 대교구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

지난 소식지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Cuenca(꾸엔카, 주도)의 주보성인(여성)인 La Virgen de las Angustias(라 비르헨 데 라스 안

구스티아스: 고통의 성모, 9월 15일)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호에는 Cuenca 교구의 주보성인(남성)인 San



Julián(산 훌리안, 1월 28일의 날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San Julián은 이곳 교구의 두 번째 주교님이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성인은 바구니를 엮어 그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상에는 바구니가 들려 있으며, 그분이 등장하는 그림에서는 주로 산 중턱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듯 바구니를 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San Julián 성년을 지냈습니다.)

1월 28일 성인의 대축일은 Cuenca 지역의 공휴일입니다.(스페인의 공휴일은 국가 전체가 쉬는 날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만 따로 쉬는 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의 Ermita(에르미타,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성인을 기리는 조그마한 경당 곳)가 있는 산을 오릅니다. 약 한 시간 남짓 걸리는데, 쌀쌀한 날씨에

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Ermita에 미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비 신자들은 소풍하듯 산에 올라갑니다. 가족끼리 모여 함께 미사를 드리거나 본당 단위로 모여 미사를 드리고(이날 Ermita에서는 3대의 미사가 있습니다) 점심으로 다들 집에서 싸 들고 온 bocadillo(보까디요, 바게트 빵에 얇게 썬 하몬(돼지 뒷다리를 말린)이나 tortilla(감자를 넣어 만든 큰 계란말이를 넣은 간식)와 음료, 과일을 입구에서 받은 빵과 함께 먹습니다.

주보성인인 고통의 성모의 날과, 훌리안 성인의 날을 지내며, 이곳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에 대한 애정이 부러웠습니다. 도시는 물론 마을, 본당의 주보성인(남성, 여성 두 분씩, 여성은 보통 성모님)의 날도 9일기도를 하며 기다리고, 당일에는 짧게라도 행렬을 하면서 성인을 기억하고 성인의 삶을 본받고자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런 성인 공경의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도 이곳과 같이 한국 교회와 본당 그리고 개인의 주보성인에 대한 신심과 사랑, 그리고 성인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보았습니다. ❧



칠레

이키케 교구



이한규 대건안드레아 신부



찬미예수님. 이곳 칠레의 여름은 긴 휴가철입니다.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많은 이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혹은 가족과 친척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본당 차원에서 특별한 행사보다는 한산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 역시 이때 휴가를 지내곤 합니다. 다시금 올 한해 열심히 뛰기 위한 잠시간의 휴식이라고 할까요. 저 역시 이번 겨울엔 휴가를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기도로 청해봅니다. ❧

이키케 교구



정성훈 프란치스코 신부

칠레 산티아고에서 선교 중인 정성훈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는 7개의 공소가 있습니다. 이곳 공동체의 특징은 일자리를 찾아 칠레로 이민 온 아이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네 산책을 나가면 한 집 걸러 한집 아이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들에 대한 칠레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겼다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이들 때문에 마을에 범죄가 늘어나고 문제가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이 중남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아이티 사람들은 스페인어가 아닌 불어와 자국의 언어를 사용했기에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대화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지난 12월 이곳에 발령받고, 함께 사는 호주 신부님 그리고 이곳 신자 분들과 처음 했던 선교는 성탄 미사에 아이티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페인어와 불어로 초대장을 만들고 가정 방문을 다니며 미사 시간과 성당 위치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이티 인구의 80% 정도가 가톨릭 신자이지만, 칠레로 이민을 온 뒤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7개의 공소 중에 일부 공소는 새로운 아이티 사람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일부 공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후에 공동체와 함께 가정방문과 선교 결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 결과에 만족하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선교 결과에 실망하고 원인을 찾거나 다음 번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누는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공통된 의견 하나는, 아이티 사람들과 친교의 시간이 부족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소 근처에 혹은 옆집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지만, 선임견 때문에 혹은 무관심 때문에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성탄이라는 이유로 미사에 초대받았을 때 기쁘게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열



마나 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이후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음으로 저희 공동체에서 준비한 것은, 친교의 시간을 늘리는 노력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번은 칠레 사람들이 그 다음은 아이티 사람들이 돌아가며 각자 나라의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미사 후에 같이 음식을 나누며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시간과 함께 아이티 사람들을 위한 기초 스페인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교사 출신이나 스페인어 교육이 가능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추천을 통해 아이티 사람들을 위한 작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칠레 아이들과 아이티 아이들을 위해 1월과 2월 휴가 기간에 맞추어 매주 신앙학교를 함께 하면서 칠레 부모님들과 아이티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티 사람들에게 함께 일자리를 찾아 주거나, 비자나 월급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티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이곳 공동체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직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 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나눔을 통해 기쁨을 찾고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이곳 공동체의 희망을 봅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칠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교우들은 가톨릭교회에 실망하여 공동체를 떠나고

나, 신앙생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아이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주일에 함께 미사를 드리거나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이들이 함께 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성숙의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활동들을 하면서 어려움도 따르고 작은 문제들도 생겨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

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과정과 시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변화의 시간에 있는 이곳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시간 안에서 많은 은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탄자니아 시낭가 교구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



제가 있는 이곳 탄자니아, 특히 수쿠마 부족 사람들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특징은 바로 ‘미안할 때 웃는 것’입니다. 저에게 뭔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거 같은 실수를 하고도 시원하게 웃어버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사랑을 나누려 선교사로 왔다가 성격만 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절로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물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큼니다. 오로지 빗물로만 버텨야 하는 곳이니 건기가 되면 세수나 양치를 하기 위해 물 한 움큼을 더 쓰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엄청난 계산과 염려를 해야 합니다. 몸으로는 익숙해지나 마음으로는 적응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예민해지고 얼굴에는 미소보다 짜증이 쌓여 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힘든 곳에서 그나마 가장 많은 것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제가 오히려 가장 찌푸린 얼굴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보다 훨씬 낫

은 존재인 피조물이 되어 오셨는데, 저는 고작 사는 환경 조금 어려워진 것으로 세상이 망해가는 얼굴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저 이들과 ‘함께’, 이들 ‘처럼’, 이들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 노력하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한국에 있었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기쁨들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리지 않아 걱정이 가득하던 중, 한 달 만에 내린 비에 주임신부님과 함께 깡충거리며 기뻐했던 순간, 한두 달에 한번 시내에 나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에 저도 모르게 외치게 되는 알렐루야, 조금씩 말이 통하며 마음을 알아가고 머나먼 곳에서 온 저를 걱정해주는 교우 분들의 마음, 결국 복사단 친구의 말처럼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람들이 제 얼굴에 옮겨준 미소와, 상황들이 제 얼굴에 심어준 미소로 처음보다 많이 웃고 자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한 병을 얻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한 은총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 교우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모두의 기도가 맞닿아 하느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시낭가 교구



전동진 스테파노 신부

찬미예수님!

오랜만에 다시 소식을 전합니다. 다들 안녕하셨지요? 저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탄자니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으면서도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직 전 본당에 가진 않았습니니다. 여기서도 다시 언어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처음 도착해서 3주 정도는 먼저 이곳에 오셔서 선교 중이신 김윤상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 지냈었고, 지금은 4개월 과정의 언어학교를 이수중입니다. 이곳 무소마 언어학교의 생활은 참 단순합니다. 신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게 하지요.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바쁨을 뒤로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노라니 그동안 미뤄두었던 숙제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숙제들이 말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참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제가 있던 세상이 얼마나 작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 여겼는지... 왜 그렇게 본당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리도 교만했었는지... 밖에 나와 보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지요. "이렇게 작고 미약한 존재를 그분은 사제로 세워주셨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하느님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런데도 난 서울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내 잘난 맛에 내가 한것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었



구나."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하는데, 자꾸만 제 자신을 그분위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배우고 할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 아프리카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천천히, 하나씩 저에게 가르쳐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곳 말에 "haraka haraka haina baraka 하라카 하라카 하이나 바라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빠른 것에는 은총이 없다." 정도가 되겠군요. 하느님께서서는 빠른 생활에 적응하여 많은 것을 놓치고 있던 저에게 천천히 하나씩 당신의 은총을 주시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교우 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먼 곳에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바쁘고 각박한 삶 속에서 잠시 한숨 고르듯 천천히 걸으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



일본

후쿠오카 교구



신광수 베드로 신부

제가 현재 있는 후쿠오카 교구 차야마 성당은 매일 아침 7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신자 분들이 근거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서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는 많지 않

습니다. 하지만, 매일 묵묵히 성당에 오시는 신자분이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군중에 있을 때, 성모회 자매님들 몇 분 그리고 군중병과 함께 미사를 드리다가, 일본에 와서 일곱 분의 신자

들과 미사를 드리니 ‘사람이 많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주로 70~80대의 할머니 분들이시고,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십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 성당에 와서 첫 평일미사를 드리고 난 뒤였습니다. 할머니 한분이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많은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군중 때보다 많다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미사에서 일본어로 표현은 부족했지만, 다음과 같이 짧은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쿠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라고 아세요? 영화 속의 7인의 사무라이가 마을 사람들을 지켜줬던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 성당을 지키는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그냥 사무라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무라이입니다.” 저의 짧은 일본어 강론이었지만, 다들 싱글벙글한 모습을 보니 말보다는

마음이 통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그 7인의 사무라이 할머니들은 모두 건강하시고,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후쿠오카는 눈이 1년에 한번 오지만), 바람이 부나 늘 열심히 오십니다. 무엇보다 이 7인의 사무라이 할머니들에게 감동받는 것은, 늘 미사 30분 전에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사제들을 위해... 미사 직전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성모성월이나 로사리오 성월이면 묵주기도까지 해야 하니 더 일찍 모이시고요.

이런 할머니들과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성당에 발령받은 지 1년 밖에 안되었지만, 다시 다른 성당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어짐이 아쉽지만, 하느님의 7인의 사무라이 할머니들께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시 짐을 꾸려봅니다. ✎

요코하마 교구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눈 한번 제대로 안 오는 요코하마의 겨울을 보며 ‘역시 일본은 따뜻한 나라로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추워지는 일본의 겨울을 체감하며 역시 요코하마는 1월부터 겨울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큼 춥지는 않지만, 오히려 크게 춥지 않은 날씨 때문에 실내 난방이 약해서 은근히 더 추위를 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이제 일본에 온지 만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처음보다는 마음 편하게 일본어로 미사도 하고 신자 분들과 간단한 이야기기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 요코하마 교구의 어느 본당을 가더라도 기쁘게 사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라고 해봐야 아침미사, 일본어 수업, 미사 준비와 강론 쓰기의 반

김윤복 모세 신부

복인 단조로운 삶이지만, 오히려 단순한 일상이라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 없이 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교구는 100여 명의 신부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구지만, 정작 요코하마 교구 출신 일본인 신부는 40여 명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수도회와 교구 신부들이 교구



사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외국인 신부로서 요코하마에 와서 일본어를 배워 미사를 드리며 살다 보니, 자연스레 '옛날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셨던 수많은 외국인 신부님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 박해 시대도 아니고 일본이 옛날 우리나라처럼 살기 어려웠던 나라도 아니지만, 지금 요코하마

교구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외국인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고마움을, 나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와서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조금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한국에서 사제생활을 하면서 쉽게 지나치고 넘어갔던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되돌아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❷



대만

타이중 교구



겨울답지 않았던 대만의 겨울이 어느새 물러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른 아침과 밤에는 긴팔을 입어야 하지만 낮에는 이제 슬슬 무덥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번 겨울은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듯합니다. 1년 내내 푸르스름한 나무들만 무성하다 보니, 추운 계절의 소중함도 새삼 느껴집니다.

조금씩 말을 배워 가면서, 이제는 대만 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는 메리놀 회관의 직원분들과 시간을 공유하고, 언어 센터의 선생님들과도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상 안에 조금씩 젖어 들고 있는 대만에서의 하루가 분주하게 채워집니다. 많은 신부님들, 신자 분들, 그리고 귀여운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까지... 아직 부족한 언어 탓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쁘게 맞아주고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흡사 한국 교회의 신자 분들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대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남북한, 중국, 미국 이야기부터 한국 천주교회,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국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부족하나마 한국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새로운 기회라서 흥미롭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니 이 나라말을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배 신부님이 기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부



를 주셔서 신자 친구들이 아닌, 일반 고등학교 한국어 특별 수업을 갖고 그렇게 일일 선생님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미사 봉헌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제 미사 경문과 강론을 듣고는, 발음이 이상한지 막 웃기도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도 합니다. 한국에 서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을 나눠줄 사탕과 초콜릿을 사다 보면 무엇인지 모를 기쁨이 찾아오고, 별말 없이 건넨 사탕 하나에도 웃어 주는 아이들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어느새 많이들 자랐을 한국에서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떠오르고, 그 녀석들과의 추억 덕분에 미소를 짓다 보면, 다시금 생겨나는 그 힘을 가지고 이곳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멀리 있는 듯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느님 울타리 안에 모여든 귀한 자녀임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봄의 축복을 미리 전해 드립니다. ❸

신주 교구



제가 있는 신주 교구는 다행히도 대만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가장 많은 교구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신부님 다섯 분과 성골롬반선교회 신부님 두 분, 신주 교구 소속 신부님 여섯 분, 그리고 한국외방 수녀님 세 분, 골롬반 평신도 선교사 두 분도 이 교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주 교구는 대만에서도 특히 현지인 사제, 수도자보다 외국인 사제, 수도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제모임에 가보면 대만인 신부는 손에 꼽을 정도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콩고, 독일,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신부님, 수녀님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구청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언어 연수중에 있는 태국 외방 선교회 신부들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김재원 베드로샤벨 신부

이곳의 생활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편입니다. 아침에 주교좌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간단히 아침식사를 챙겨 먹고,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교구청 직원들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개인 시간 또는 운동을 하고, 저녁에 복습을 하거나 숙제를 합니다. 때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만나 언어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곳에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중일 겁니다. 말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사람도 낯섭니다. 어쩌면 제가 낯설게 느끼듯이 여기 사람들에게도 제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내며 저는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갈수록,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과 다른 것들을 배우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서 저는 이 지역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감을 느낍니다.

교구 사제임에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한 기회이며, 은총의 시간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



主佑平安!

안녕하십니까. 중국 사천성 성도에 있는 김성민 시메온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소식지로 고국에 계시는 신자 분들께 연락을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두 달간의 겨울 방학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비교적 자유로워 중국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기에 이번에는 방학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방학기간 동안 기회가 되어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

김성민 시메온 신부

습니다. 이곳 중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제가 사는 성도에서 비행기로 3시간, 고속열차로 10시간이 걸리는 무척 먼 곳이기에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베이징 방문은 무척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천안문, 만리장성 등 많은 관광지가 있는 곳이지만 베이징에서 제가 가장 방문하고 싶었던 곳은 우리 조선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이승훈 베드로의 숨결이 남아있는 북당 성당이었습니다.

베이징 역사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당 성당은 예전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내부는 얼마 전 새 단장을 마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신자석 좌우에는 교회의 역사와 중국 교회의 역사가 새겨져 있고, 제대를 둘러싼 창에는 교회의 성인, 성녀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개방되어 있지 않으나, 제대 뒤편 경당에는 한국 교회와 관련된 스테인드글라스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신자 분들의 도움으로 그곳을 방문해 보았는데, 창문에는 조선에 들어와 순교를 당하신 중국인 신부 주문모 성인과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모습이, 그리고 복당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의 모습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은 감동을 느끼고 조선 천주교회의 아픈 역사와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도와준 중국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중국 천주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국을 통해 많은 성물과 교회 서적, 선교사들을 모셔올 수 있었고 박해의 탄압을 피해 방인 사제들이 양성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를 잊지 않고, 그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류는 그저 물질적인 것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도 중요한 교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중국의 많은 신자들은 한국교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교회를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1개국가 22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대만	신요섭 요셉	일본	이종안 사도요한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광수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샤넬		김윤복 모세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김성천 스테파노
	유동철 리노	콜롬비아	양호 바오로
칠레	정성훈 프란치스코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탄자니아	김윤상 프란치스코
스페인	나종진 스테파노		전동진 스테파노
	고가람 스테파노	멕시코	이승민 요셉
미국 (알래스카, 알파소)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최우주 필립보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의 마음

김세진 모세 신부
(호주 선교 후 귀국)

귀국 하고 한 달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
어가야 할지 막막한 이 글을 쓰는 중에도, 5분
이면 갈 수 있던 시드니 바닷가를 걷다 오면 머릿속이 한결
맑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직까지 요란한 짐
없이 텅 비어있는 지금 숙소는, 마치 한 달의 휴가를 마치고
다시 짐을 정리해 시드니로 돌아가야 하는 때라는 착각을 하
게 합니다. 올여름 무더웠다는 시드니 날씨를 듣고는, 지금쯤



이면 어른 주먹만 한 크기로 자랐을 사제관 마당의 아보카도 열매들이 걱정이고, 수시로 찾아오는 매캐한 미세먼지는 시드니의 맑은 하늘을 더욱 그리워하게 합니다.

8년 3개월 전 시드니로 떠나던 날의 막막함이나, 다시금 서울에서의 삶과 일을 꾸려야 하는 지금의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살다 오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가까웠던 이들이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큰 구멍이 생겨서 무엇으로 채워야 할 지 고민하다가 이내 채워질 수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허전함과 그리움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넓고 광활한 자연에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도 체험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어울려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사랑과 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9년 만에 참석하게 된

사제 서품식에서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 힘이 되어 줍니다. 더 붙어 여전히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고계신 선교사님들을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좋은 기회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순례자로 살다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서 그런지 순례자로 지내는 게 더 익숙하다 하면, 선교를 마치고 온 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곳이 집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만 뻗 수 있다면 말입니다. ☺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항상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애타게 기다리나이다.
저희 모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게 하시며
없는 이들과 약한 이들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저희 모두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사김과 섬김과 나눔으로써
한 형제 되어 한 마음 한 몸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며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떨쳐 일어나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전파의 중요한 사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시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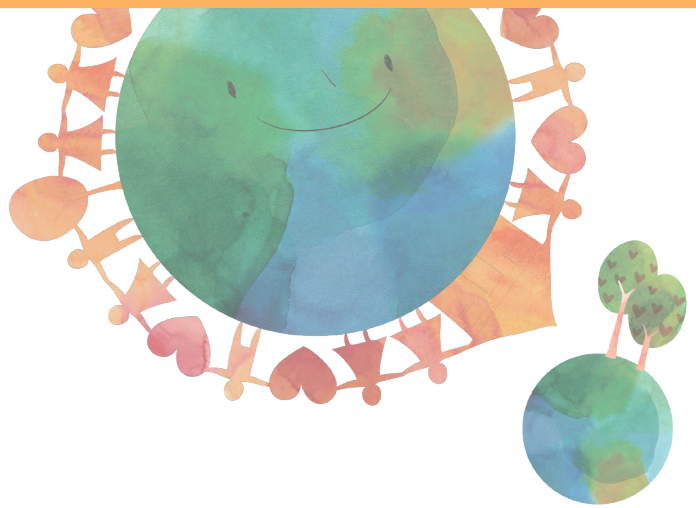
용감하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 붓게 하소서.

- ◎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바오로 사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을 전파하신 한국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선교의 모후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규환 강덕금 강명희 강문주 강선경 강선우 강수희 강영자 강윤복 강이순 강정숙 강정애 강지현 강지훈 강진선
 강춘희 강판현 강풍자 강혜란 강혜신 고경식 고문찬 고성일 고영님 고영희 고윤숙 고의영 고희주 고혜숙 고혜자
 고희숙 객나영 객민지 객상원 객종영 객희경 구가은 구모석 구민영 구민희 구부귀 구연모 권석남 권성혁 권오경
 권오영 권오중 권옥수 권완주 권익란 권정순 권효정 길신영 김경란 김경원 김경자 김경희 김공례 김교아 김국희
 김귀순 김규엽 김규태 김기범 김길옥 김나은 김난옥 김남균 김덕수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리나 김명옥 김명진
 김명춘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리 김미숙 김미자 김미화 김민성 김민수 김민옥 김민주 김민희 김병국 김봉조
 김봉홍 김부현 김비오 김삼임 김상욱 김선태 김선희 김성년 김성호 김성희 김세령 김세인 김소숙 김송태 김수남
 김수연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희 김숙자 김순금 김순례 김순옥 김순희 김승희 김시훈 김신순 김아름 김애생
 김애정 김양자 김연수 김영미 김영숙 김영신 김영애 김영운 김영자 김영조 김영준 김영진 김영희 김옥님 김옥제
 김옥희 김완식 김요완 김요자 김용기 김우경 김원선 김원자 김원중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윤자
 김은자 김은지 김이진 김인복 김인수 김인자 김임숙 김자원 김장묵 김재동 김점숙 김점순 김정란 김정복 김정숙
 김정애 김정오 김정옥 김정웅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경 김증자 김지민 김지연 김진혜 김진홍 김진희 김찬영
 김채희 김청자 김춘례 김춘숙 김총희 김태순 김태옥 김태윤 김평화 김학덕 김학찬 김현상 김현숙 김현정 김현준
 김혜련 김혜선 김혜숙 김홍순 김후덕 김희정 나범수 나석연 나정에 나현문 이서준 남계숙 남기완 남숙자 남순이
 남승민 남유정 남정임 남정희 남천현 남하현 노금풍 노혜영 라봉순 류예주 맹미숙 맹평자 무기명 문금주 문말순
 문익남 문월순 문준철 문춘일 문태주 민순덕 민은하 민정묘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근분 박금순 박기식 박기철
 박길선 박난규 박남주 박다은 박동영 박만기 박명숙 박명희 박미숙 박미자 박민숙 박병선 박봉자 박상진 박상현
 박상호 박상희 박선미 박설진 박성규 박세진 박소연 박수진 박순희 박승보 박영상 박영숙 박영신 박옥순 박옥희
 박원규 박윤경 박윤숙 박윌레 박이순 박정남 박정숙 박정아 박정현 박종국 박종숙 박주영 박지영 박진복 박진수
 박진용 박진희 박찬중 박춘지 박충서 박태련 박태안 박혜경 박효숙 박효정 박효진 박흥기 반세록 방애자 방정례
 배수정 배정숙 백명옥 백승주 백용남 백원경 백은진 백일순 백종현 백진희 변광국 변신호 변희숙 사미선 서기화
 서대관 서미란 서상록 서수용 서수진 서숙자 서순자 서안나 서영석 서영순 서영진 서용재 서유진 서정희 서주영
 서지영 서효숙 석정미 설윌레 설춘웅 성락숙 손명숙 손봉희 손영례 손영미 손영식 손용현 손정애 손희경 송금선
 송매자 송민석 송순덕 송영곤 송영남 송이종 송재일 송진아 송평근 송혜원 신경애 신삼인 신상민 신상수 신서영
 신선미 신선희 신수경 신수점 신양선 신영석 신윤숙 신재승 신정삼 신정환 신종훈 신지은 신준요 신향숙 신 현
 신현화 신혜옥 심명자 심상윤 심영란 심유진 안경숙 안경희 안다영 안명순 안문숙 안성준 안숙영 안영춘 안재숙
 안종혁 안주홍 안형숙 안효일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옥석 양재만 양정훈 양정희 양하나



엄인영 엄주영 엄지원 여재희 연연흠 연제현 오경진 오귀애 오명석 오명순 오미선 오미희 오성대어머님 오세성
 오승자 오영선 오옥남 오정석 오정훈 오종숙 오종훈 오주현 오종근 오지영 오지철 오지현 오진은 오철환 오춘숙
 오충기 오혜승 오희수 오희숙 옥다슬 왕은순 우승주 우형조 원경식 원영연 원인영 유경근 유경자 유명호 유버들
 유 숙 유승연 유승호 유윤식 유인숙 유정민 유준상 유준승 유지민 유현아 유희진 육소인 윤경애 윤계녀 윤도희
 윤동노 윤미애 윤상렬 윤소영 윤은희 윤자희 윤진숙 윤홍자 윤효석 이강석 이강울 이경애 이경옥 이광혁 이규원
 이금숙 이금순 이금자 이금주 이길자 이동근 이동식 이동울 이두식 이만수 이명분 이명옥 이명재 이명혜 이문자
 이미경 이민재 이방자 이보차 이보혜 이복금 이복동 이복순 이부순 이상구 이상귀 이상엽 이상윤 이석오 이선애
 이성범 이성자 이수준 이순금 이순이 이순자 이순화 이승엽 이양자 이연수 이연향 이영덕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예숙 이옥자 이옥희 이외순 이용승 이용희 이우령 이운천 이원미 이유진 이윤호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이분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재령 이재원 이재준 이재희 이점우 이정순 이정연 이정원 이정환 이제현 이종수 이종욱
 이종임 이종해 이주환 이준화 이지숙 이지은 이지인 이지혜 이지훈 이진주 이진통 이진화 이창경 이창엽 이철항
 이춘자 이태경 이태종 이필상 이하림 이한선 이현경 이현승 이현아 이현애 이혜란 이혜영 이화성 이희숙 이희자
 임경애 임교선 임명순 임목상 임미자 임미정 임병남 임보나 임복덕 임서영 임수주 임옥연 임용숙 임주연 임태현
 임현숙 임현준 임혜자 장경재 장명숙 장명훈 장복자 장순자 장옥분 장옥호 장은경 장인숙 장재진 장정례 장진희
 장착한 장춘자 장현준 장효숙 전용복 전옥선 전옥순 전용민 전은경 전은옥 전청자 전한상 정경자 정경화 정다인
 정대균 정동욱 정명국 정명화 정미자 정봉우 정상은 정상인 정선경 정선화 정세진 정소영 정수지 정순이 정연술
 정연임 정영선 정옥순 정용운 정윤순 정윤희 정재윤 정재현 정정윤 정정훈 정지인 정진규 정찬훈 정태양 정태원
 정평화 정혜원 정홍경 정희자 제민경 조건웅 조기연 조도연 조무선 조미숙 조미현 조병민 조병희 조봉순 조부귀
 조원주 조의영 조인경 조종순 조주연 조형선 조희문 지정순 지주옥 지창순 지 형 진갑연 진정자 차명진 차명훈
 차영미 채종서 채행찬 채희정 천봉순 천유진 최갑희 최강호 최경선 최귀혜 최길분 최동철 최문자 최보성 최복진
 최선명 최성지 최세화 최소형 최영옥 최영학 최옥경 최옥란 최우진 최운근 최원우 최원정 최윤미 최재경 최정자
 최제원 최준일 최지은 최지혜 최진이 최춘자 최한기 최해순 최현주 최형기 최호순 최환희 최희영 탁정환 하명자
 하복례 하봉자 하정순 하지윤 한미정 한승지 한윤예 한인영 한정복 한지선 한창준 한화수 함재정 허 경 허계자
 허만옥 허미래 허선아 허영진 허인숙 현문섭 현정애 현해서 홍금선 홍석준 홍성옥 홍순옥 홍승에 홍승완 홍승표
 홍영덕 홍인숙 홍인자 홍정희 홍주희 홍청자 홍필선 황경혜 황규영 황규홍 황명순 황복순 황영옥 황은희 황정록
 황정숙 황춘익 황효심 김미카엘 박마리아 성합찬이 여로즈마리 찬루이카 (쥬)주아이텍 킹스쿨학원 구분석 신부님
 박규흠 신부님 오택순 신부님 유경춘 주교님



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19년 4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님(해외선교봉사국장)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비고: 4월은 강연이 없습니다.

일시: 2019년 5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대성당 소성당(문화관 2층)

집전: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님(해외선교봉사국장)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비고: 5월은 강연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후원회 소식지 개편

매월 발행하였던 후원회 소식지를 분기마다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반갑고 알찬 내용으로 2019년 6월에 찾아뵙겠습니다.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후원 회원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발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27-2409)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선교 후원계좌

국민은행

375-01-0091-080

농협은행

386-17-002881

신한은행

140-009-624437

우리은행

454-035571-13-10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해외 선교 지원 사제 모임이 매월 첫 월요일 5시, 교구청 3층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신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필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727-2424